

2017. 제1회

강원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강원도립대학교
GANGWON STATE UNIVERSITY

2017학년도 제1회 강원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 발언요지

<개 요>

◇ 심의일자 : 2017. 5. 8.[월] / [서면]

◇ 참석위원 : 15인 중 13인 전원

- 위 원 : 박육연, 박석규, 한동준, 윤상기, 박병수, 김왕제,
양원모, 최교호, 정호선, 최명섭, 김용태, 장원준,
이정민
- 간 사 : 강성구

◇ 심의안건

- 2017회계연도 대학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별 주요 발언 요지

발언자	발 언 주 요 내 용
간 사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1,000천원으로, 지난 4월 도 추경시 확보한 도지원금 예산 123,000천원과 자체수입금 계정의 242,928천원, 학생생활관 계정 35,072천원 임. 도지원금 확보 예산의 사업은 재학생 취창업프로그램 전문기관 위탁용역비 108,000천원과 현장실습 참여학생 실습지원비 15,000천원이며, 자체수입금 세출 주요 내용은 등록금 선감면 확대에 따른 장학금 감액(△260,000천원), 학과 통폐합에 따른 교수전공 전환 교육비 17,200천원, 홍보 동영상 제작 등 92,000천원, NCS 외부인사 활용 프로그램 50,500천원, 초빙 교수 및 지원센터 전담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72,573천원, 시설 유지 보수비 93,000천원 등이며, 학생생활관은 난방유류비, 인건비, 소모품 등으로 35,072천원을 편성하였음
위원장	도 예산 형편상 도 추경 예산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23백만원 사업비를 대학에서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임. 이번 추경은 대학의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사업 반영에 집중해야 함
윤상기 위원	당초예산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대학 홍보 동영상 제작비와 NCS관련 사업비 등 부서 요구액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학생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충실히 진행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람
김왕제 위원	도 지원금 예산이 도 추경에서 123백만원이 반영 된 것은 대학의 정상화에 대한 도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 구성원 모두는 도의 뜻을 잘 인지 해 주셔서, 하루속히 대학의 정상화와 더 나은 발전을 이뤄 주시기 바람
정호선 위원	그 간 강원도립대학교는 강원도와 지역 사회의 얼굴 역할을 해 주었는데 최근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음. 어려울수록 대학 홍보와 내부 시스템 개편·발전을 위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편성안에 잘 반영된 것으로 보임

발언자	발 언 주 요 내 용
양원모 위원	당초예산 편성시 논의 되었던 생활임금제 반영에 따라, 평생교육원 기간제 직원 인건비가 증액 편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도 차원의 방침을 잘 이행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준 위원	대학의 홍보는 2018년 성공적인 입시추진과 대학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현 시점 상, 가장 중요한 사안중의 하나로 부각되었음. 따라서 추경에 반영된 홍보동영상 제작 등을 면밀하게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기대 해 보며, 어려울수록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만들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지역사회협력프로그램 예산이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 임
최명섭 위원	신규채용 초빙교원에 대한 사무집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교수 연구실 집기구입 예산이 특정 학과인 유아보육과 교수들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게 보이는데, 향후라도 타과 교수님들 집기도 수요조사를 통해 형평성 있게 예산 반영이 됐으면 함
박석규 위원	학과 통폐합에 따른 교수 전공전환 교육비 지원금은 2016회계연도 2회추경때부터 1학기 분에 대해 일부 편성하였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연간 예산을 모두 반영했어야 했지만 미처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시 반영하게 되었음. 대학의 구조개혁의 큰 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긍정적인 판단 부탁 드립니다
장원준 위원	각종 재학생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긍정적 임. 그러나 신입생에 대한 학생회비가 작년 15만원에서 금년도 대학측과 협의 결과 10만원으로 결정되어 총학생회에서 추진하는 학생축제 등 학생자치행사 추진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음. 이번 예산안과는 관계 없지만 향후라도 학생 자치활동 예산 반영을 당부 드립니다.
간 사	최명섭 위원이 말씀하신 유아보육과 이외의 학과 교수님들 집기 예산과 장원준 위원이 말씀하신 총학생회 자치행사 추진 경비 예산 관련건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금년 내 추경예산 반영이 어려우면 내년 당초예산 도지원금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발언자	발 언 주 요 내 용
박병수 위원	이번 추경에 가장 관심 있고, 비중있는 예산은 재학생 취창업프로그램 전문기관 위탁 용역비 예산 임. 강원도 1회 추경시 반영되어 도 지원금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대학의 가장 큰 현안인 취업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외부 용역으로 추진하게 된 만큼 정밀하게 계획하여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람
김용태 위원	학과 교수 연구실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 예산을 3천만원 반영하였는데, 지난 2016년 2회 추경에 이어 2회차로 총 6천만원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교수 연구실 뿐만 아니라 대학본부 건물에도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1998년 개교이래부터 사용되어 오던 현실대비 비효율적인 중앙집중형 냉난방시스템을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했으면 함. 10년이 넘도록 사용한 노후한 해송홀 집기 교체 예산 8백만원 반영은 다소 적은 감이 있긴 하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 됨
간 사	대학본부 최신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부분은 시설팀과 협의·검토하겠음
최교호 위원	NCS기반 외부인사 활용 프로그램 운영비 50,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대학 외부 전문지식 인사들을 통해 많은 현장교육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 함
위원장	대학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고려한 강원도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의지를 금회 추경에서도 엿볼수 있었음. 대학에서도 그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함. 금회 재정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체 위원들이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 함. 재정위원회 주요발언 요지(회의록) 날인자는 대학 내부 위원중에 위원장인 본인과 사무국장, 김용태 위원으로 하고자 함.